
한국어 한자어의 기준에 대한 관견

이득춘 · 중국 연변대학 조문학부 교수

1.

한국어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과 위치에 대하여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리고 현실에서 수시로 새 한자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한자를 혼용하는 한국의 언론, 출판물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한자 사용을 폐지한 평양에서도 새로운 한자어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국립국어연구원의 보고서 “2002년 신어”에서 보면 2002년에 생긴 신조어 408개 중 한자어와 한자어가 부분적으로 관련된 단어가 총 204개로 전체의 50%를 점하나 고유어의 경우는 고유어와 고유어가 부분적으로 관련된 것까지 모두 포함해도 90개로 22.1%에 지나지 않는다. “2003년 신어”에서 보면 656개의 신조어 중 한자어와 한자어가 부분적으로 관련된 단어는 총 374개로 57%를 점하지만 고유어는 고유어가 부분적으로 관련된 단어까지 합하여 122개로 18.6%밖에 안 된다. “2004년 신어”에서도 한자어는 외래어 버금으로 많으며 그 비중은 고유어와 비교하면 상

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다. 2004년의 신조어를 몇 개 들어 본다.

- 謹吊國會, 週末創業, 教育家電, 苦痛節, 放闊, 新名品族, 三一絕, 慣習憲法, 超熱帶夜, 腕章文化, 早出殘業, 中禍論, 愛必, 自紹書, 司法統治, 青白全, 四五六四世代, 一八三空世代, 夜間型人間, 企業都市, 文化接待, 接待實名制, 現金領收證制度, 豪客每場, 生活治療, 胎盤注射.
- 손風機, 스타指數(star~), 실버골制度(silver goal~), 색깔獨裁, 깡桶不動產, 토廢人(toeic~)

이처럼 한자어는 시시각각 우리 어휘 구성 속에 침투해 오고 있다. 또 한자어는 고유어와 쌍벽을 이루는 하나의 완전한 어휘 체계로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날로 생성되는 ‘한자어’에 대하여 그 용어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해 왔는가?

먼저 우리말 사전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자어’(또는 ‘한자말’)에 대한 뜻풀이를 열거해 보려 한다.

- (1) “우리말큰사전”(한글학회)
한자어(한자말): 한자로써 된 말.
- (2)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한자어: 한자로 적을 수 있는 단어.
- (3) “조선말사전 5”(과학원출판사)
한자말: 한자에 기초한 단어를 고유 어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 (4) “조선문화어사전”(사회과학출판사)
한자말: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
- (5)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한자어(한자말, 한자어휘): 한자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말마디.
- (6) “연세한국어사전”(연세대)
한자말: (한국의 고유어에 대하여) 한자로 이루어진 낱말, 한자로 된 말.
한자어: (한국의 고유어에 대하여) 한자로 이루어진 낱말, 한자에서 비롯된 말.

(7) “동아새국어사전”(두산동아)

한자어: ‘한자에서 비롯된 말’을 고유어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한어(漢語): ①한자(漢字)로 된 말. 한자어. ②한족(漢族)의 언어. 중국어.

2.

2.1.

위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한자로 이루어진 낱말”, “한자로 된 말”, “한자에서 비롯된 말”, “한자로써 된 말”, “한자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말마다”, “한자에 기초한 단어” 등으로 풀이한 사전들에서의 어의(語義)는 한자어에 대한 정확한 해석으로 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들 해석은 모두 한자로 조성된 낱말이라는 점만 지적하고 있다. 한자로 조성된 낱말이란 개념은 좀 미비하다. 그것이 미비하다고 하는 원인은 한자로 조성된 낱말이라고 할 때 그것이 한자의 초지역적 특징으로 하여 내포하고 있는 뜻을 무시하였기에 오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한자로 조성된 말은 한국어뿐 아니라 무릇 한자를 쓰는 나라와 민족에게 모두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한자로 된 단어는 한자 중주국인 중국에는 물론, 일본을 포함한 기타 주변국에도 있기 때문이다. 이 나라들의 한자로 된 말을 우리가 구별 없이 끌어다 쓰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또 이 나라들의 한자로 된 말은 같은 한자로 되어 있다 해도 우리의 한자어와 꼭 같은 뜻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중국어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공장(工場)’을 쓰지 않고 ‘工廠(공창)’이라 하며 ‘광우병(狂牛病)’을 ‘瘋牛病(풍우병)’이라 한다. ‘工廠’, ‘瘋牛病’이 한자로 되었다 하여 한국어 한자어라 할 수 있겠는가?

중국어에서도 우리가 일본처럼 ‘汽車’나 ‘足球’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은 전혀 다르다. 중국어에서는 ‘汽車’로써 ‘자동차’를 가리킨다. 중국어에서 ‘足球’는 우리가 말하는 ‘축구’를 가리키는데 한국어에서는 ‘足球’가

‘두 팀이 네트를 사이에 두고 코트 안에서 공을 발로 3번 차서 넘기는 경기’를 가리킨다. 중국어의 ‘汽車’나 ‘足球’가 한국어와 같은 한자로 되었다 하여 우리 한국어의 ‘자동차’나 ‘축구’와 같은 뜻으로 쓸 수 있는가? 대답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이러한 단어는 얼마든지 예를 들어 보일 수 있다.

(예)

階段/樓梯, 寫真 /相片, 酸素/氧氣, 片道/單程,
誘導彈/導彈, 飛行機/飛機, 冷凍庫/冰箱,
美貨/美元, 日貨/日元(圓), 韓貨/韓幣

여기서 우리는 타국어의 ‘한자로 된 말’이 꼭 한국 한자어가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우리말에 아직 차용되지 않은 중국이나 일본에서 쓰는 한자로 된 말이 한국어의 한자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극소수 중국어 단어나 일본어 한자어가 우리의 출판물에 등장할 수 있다. 얼마 전에 (2005년 4월) ‘어언(語言)’이란 중국어 어휘가 고유 명사의 조성 부분으로 한글로 KBS TV 화면에 나타났다. ‘어언’이 언론에 쓰였다 하여 그것이 우리말에 들어왔다고 할 수 없다. 한국어에는 이미 ‘언어(言語)’라는 한자어가 있으므로 ‘어언’이란 단어는 독자적으로 쓰일 가망이 거의 없다. 이 경우 이 단어는 한국어 어휘 구성 속에 수용될 수 없으므로 모 개인이 썼고 또 인쇄물에 나와 있다 해도 보통 명사로서의 한국어의 한자어는 될 수 없다. 이와는 달리 ‘한류(韓流)’는 중국 매체에서 한국 대중문화의 분위기를 일컫는 데 쓰는 것을 한국에서 한국 한자음으로 받아들여 쓰고 있다. ‘세계배(世界杯)’라는 중국어는 ‘월드컵’이라는 동의어가 있음에도 ‘2002년 신어’에 수록되어 있고, ‘안전투(安全套)’란 단어도 ‘콘돔’이란 단어가 있음에도 수용되었다.

(예)

다름 아닌 ‘세계배(월드컵)’ 덕분이다.<“동아일보”, 2002년 6월 14일 6면>
중국답게 그들은 콘돔을 ‘안전투’라 부르고 있다.<“일간스포츠”, 2003년 12월 9일 21면>

‘어언’과는 달리 ‘세계배’나 ‘안진투’는 동의 경쟁 속에서 한국어에서 계속 쓰일 경우 보통 명사로 고정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신조어’로 등장했다라도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도태되는 것은 한국어 한자어라 보기 힘들다. 그 까닭은 최종적으로 한국어 어휘 구성 속에 용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한국어 한자어는 말 그대로 반드시 한국어 어휘 구성 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한자로 조성된 것이라 하여 한국어 어휘 구성 속에 자리 잡지 못한 중국어나 일본어의 한자어를 함께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망각하면 우리말 속에 타국의 한자어를 마구 끌어들이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상의 것들과 연계시켜 한국에 유행되는 “동몽선습”의 구결문 한 단락을 인용해 보자.

天地之間 萬物之衆匡 唯人伊 最貴爲尼 所貴乎人者隱 以其有五倫也羅
…… 然則 父慈子孝爲旡 君義臣忠爲旡 夫和婦順爲旡 …….

“동아새국어사전”에 의하면 ‘天地, 間, 萬物, 人, 貴~, 五倫, 然則, 父, 子, 孝, 君, 義, 臣, 夫, 和~, 順~’ 등은 명사, 부사, 형용사 등 형식으로 한국어 어휘로 쓰이고 있다. 이는 장시기의 한문 사용 과정에 문어로 차용된 것이다. 따라서 분명히 한국 한자어이다. 그러나 ‘之, 衆, 唯, 其, 也, 慈, 忠, 婦’ 등은 아직도 한국어 어휘로 차용되지 못하였다. 이런 경우에 이것들은 한국어 한자어라 할 수 없다.(“조선말대사전”(평양)에는 ‘之, 衆, 唯, 其, 也, 慈, 婦’ 등은 없지만 ‘忠’은 단어로 올라 있다.) ‘最, 所, 者’는 차용되었다 하더라도 접사, 의존 명사로만 쓰인다.

이처럼 한문 속의 모든 단어가 한국어 어휘로 될 수 없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두문 속의 한자로 된 단어가 현실적으로 모두 한국어 단어로 되는 것도 아니다.

彼將乙 能斬爲旡, 彼軍委 旌旗乙 能奪爲旡, 萬里軍鋒乙 摧折爲旡, 他國軍衆乙 率領來降一國人民乙 安寧令是旡, 邊塞疆境乙 開闢有大功勞爲去等, 右功勞乙

大常旗良中 書上爲有臥乎人 ……: <“大明律直解”, 名例律 卷, 八議 中 議功>

“동아새국어사전”,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보면 ‘奪, 摧折, 軍衆, 率領, 來, 降, 書上’ 등 단어는 표제어가 없으며 ‘彼將, 彼軍’도 없다. ‘彼’는 ‘他’처럼 관형사로 쓰이지도 않고 ‘他國’처럼 단어도 이루지 못하였다. 비록 이두문의 어휘이지만 현대 한국어의 어휘 구성 속에 자리 잡지 못한 것임을 설명해 준다. 한자로 이루어졌어도 현대 한국어 한자 어휘는 아닌 것이다.

2.2.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한자어’에 대하여 “한자로 적을 수 있는 단어”라고 풀이하고 있다. 보다시피 한자어의 정의를 한자로 적을 수 있는 단어여야 한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2.1.에서 논의한 “한자에서 비롯된 말”, “한자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말”일지라도 ‘한자로 적을 수 없는’ 단어 부류가 있음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상 한국어에서 이루어졌거나 중국어에서 차용한, 한자로써 이루어진 한자어라 하더라도 오늘날 한자로 적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사냥, 성냥, 생철, 붓, 접시, 가지, 피리, 베, 장난, 동아, 썰매’ 등 단어는 분명 “한자에서 비롯된 말”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한자로 적기 어렵다. 그것은 한자란 음과 뜻이 어울린 것인데 이런 단어의 현실음과 뜻에 맞는 한자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알 수 없거나 어원을 따져 단어 출현 초기의 한자를 기록해 놓아도 그 한자의 음은 단어의 현실음과 다르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해서 ‘山行, 石硫黃, 西洋鐵, 筆(不律), 樸子, 茄子, 鷲策, 布, 作亂, 冬瓜, 雪馬’ 등으로 적어 놓으면 그것은 ‘산행, 석류황, 서양철, 필(불룰), 접자, 가자, 필룰, 포, 작란, 동과, 설마’로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단어들은 ‘학교, 공장’ 등과 같이 한글로 적었어도 그 음에 의해 ‘學校, 工場’과 같이 한자로 적을 수 있는 단어와 달라 현행 단어의 음에 대응되는 동이의 한자가 없다.

이상과 같은 것들을 제쳐 놓으면 현실의 한국 한자어는 한자를 직접 사용하여 적을 수 있고 전혀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 한글로 적을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한자로 치환할 수 있다. 한국 한자어의 기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어에서 차용한 한자어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일본어에서 차용한 한자어(음독 한자어, 훈독 한자어 그리고 일부 일본 외래어로부터 한국 한자음으로 차용한 것도 포함)도 모두 한자로 적을 수 있거나 한글로 적은 것이면 한자로 치환할 수 있다.

(예)

- 형태소(形態素), 음운론(音韻論), 생성 문법(生成文法), 철학(哲學), 이성(理性), 총리(總理), 자본(資本), 정맥(靜脈), 중재(仲裁), 학위(學位), 전보(電報), 본질(本質)
- 출장(出張), 취체(取締), 견습(見習), 수속(手續), 광장(廣場), 시장(市場), 조합(組合), 신분(身份), 취소(取消), 견본(見本), 입구(入口)
- 호열자(虎列刺), 임파(淋巴), 낭만(浪漫), 구락부(俱樂部)

한국어에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차용한 한자어가 아닌 한국 자체로 만든 한자어가 있다. 한국 자체로 만든 한자어는 중국 한자로 조어한 것, 한국 자작 한자로 조어한 것 등이 있다. 이런 한자어들은 모두 한자로 적을 수 있으므로 “표준국어대사전”의 어의 풀이에 의하면 한자어가 될 수 있다.

(예)

- 중국 한자의 원뜻을 보유하면서 조어한 단어:
 훈장(訓長), 양반(兩班), 어중간(於中間), 육담(肉談), 촌기(村氣), 칠판(漆板), 권술(眷率), 식구(食口), 방송(放送), 잡가(雜歌), 잡탕(雜湯), 평시조(平時調), 진서(眞書), 동산(東山), 백정(白丁), 양주(兩主), 야단(惹端), 별실(別室), 소피(所避), 선달(先達), 편지(片紙), 천엽(千葉), 생선(生鮮), 세답(洗踏), 소지(所志), 분간(分揀), 사음(舍音), 명주(明紬), 책보(冊褌), 미안(未安)

- 한국식 뜻을 가진 중국 한자[國義字]로 조어한 단어:
 매부(妹夫), 광목(廣木), 청태(靑太), 동태(凍太), 고과(告課), 결전(結錢), 처남(妻男), 제수(弟嫂), 백목(白木), 월세(月費), 근각(根脚), 전차(詮次), 무면(無麪), 지차(之次), 당목(唐木), 척사(擲柶), 지만(遲晚), 월자(月子), 보(洩), 기운(氣運), 외면(外面), 내외(內外), 사촌(四寸), 삼시(三時), 배지(牌旨), 봉상(捧上), 시가(媿家), 고목(告目), 전세(傳貴), 시숙(媿叔), 등내(等內), 온돌(溫埃)
- 한국한자(국자)로 조어한 단어:
 전답(田畓), 책장(冊穢), 대지(垜地), 거도선(艇舩船), 동의대(胴衣襟), 옛시조(靛時調), 산자(撒子), 답(畓), 전피(狹皮), 숙궁(稂宮), 서실(闔失), 선진(縑塵), 신답(新畓), 가대(家垜), 의장(衣穢)

평양에서는 한자 사용을 폐지한 지 반세기가 넘었다. 오늘날 한자를 쓰지 않는다 하여도 의연히 한자에 기초하여 만들어져 한글로 기록되는 새 한자어들이 있다. 이처럼 한자 사용 폐지 후에 반세기가 넘어도 새 한자어가 생성되는 원인은 사람들의 ‘언어 의식’ 속에 한자와 한자음 체계가 의연히 살아 있으며 이에 기초해 새 단어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통일각’, ‘주체담’, ‘친필교시비’, ‘구호문헌’ 등 한글로 적힌 단어는 ‘統一閣’, ‘主體塔’, ‘親筆教示碑’, ‘口號文獻’ 등의 한자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분명하다.

천리마체, 천리마운동, 천리마학급, 천리마정신, 주체사상, 주체공업, 주체사상탑, 주체형, 친필비, 결사용위

이러한 사실은 한자 폐지 이후 오랫동안 한글로 한자어를 적어 왔기 때문에 한자어는 더 이상 한자로 분석하거나 복원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견해에 대하여 좋은 반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한자로 표기하지 않았더라도 고유어와 다른, 한자음 체계와 의미 구조는 한글로 적힌 한자어를 통해 보존되고 ‘언어 의식’ 속에 이어져 새 한자어를 생성할 수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새 한자어가 의연히 인간 두뇌 속의 한자로써 구성되어 한글로 적힘으로써 그것을 다시 한자로 복원할 수 있는 것이다.

2.3.

무릇 글자라 하면 음이 있기 마련이다. 한자는 표의 문자이면서 하나하나의 글자가 음을 가지고 있다. 한자는 한국에 수용된 후 중국어와는 다른 자기의 발음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한자음 체계가 꼭 고유어의 음운 체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한자어는 한자로 구성되어 있기에 한자음을 떠나서는 생존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것이 한자로 기록되었든 한글로 기록되었든 한국의 한자 독음 규범에 부합되어야 한다. 2.2. 부분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역사상 한자에서 비롯된 단어라 하더라도 한자어로 보기 어려운 것이 있다. 그 원인 중의 하나가 그 단어의 음이 규범 독음과 다르기 때문이다. 위에서 예를 보인 ‘사냥’은 원래 한자어 ‘山行’에서 유래되었다.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음운 변화를 거쳐 오늘의 ‘사냥’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의 의식에서 ‘사냥’과 ‘山行’을 연계하기 어렵다. 물론 한국 한자에 ‘사’나 ‘냥’의 음을 가진 한자는 있지만 그 뜻이 ‘山行’과 어울릴 수 없다. ‘붓’은 한자 ‘筆’ 혹은 반절 ‘不律’에 유래한다고 하지만 현실 한국 한자음에는 ‘붓’이라는 음이 없다.

이런 유형에 속하는 한자어들은 음이 변하였는바, 음이 변하였다는 것은 그것을 다시 본래의 한자와 연계시킬 수 없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음이 변함에 따라 한글 표기까지 변한 이러한 단어들은 한자 독음 규범의 견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고유어 음운 법칙을 따르게 된다.

(예)

벽력(霹靂) > 벼락(음소 탈락, 모음 변화)

휴지(休紙) > 수지(구개음화)

작란(作亂) > 장난(자음 동화)

악수(惡水) > 역수(모음 조화)

한자의 음은 한자어가 정음으로 표기되었든 한자로 표기되었든 관계없이 한자와 더불어 한자어의 기본 표식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일부의 한자어들은 그 음이 고유어 음운 법칙을 따라 변했을 뿐만 아니라 그 뜻도 변하고 있다. ‘衆生’은 ‘증승, 짐승’으로 변하였을 뿐만 아니라

뜻도 원래의 불교에서 일체 생명체를 가리키거나 사람과 동물을 가리키던 데로부터 ‘날짐승과 길짐승’ 혹은 ‘몸에 털이 나고 네발 가진 동물’을 가리키게 되었다.

따라서 현실적인 한자어와 기원적으로 한자어지만 현실적으로 한자와 관계를 끊은 것을 구별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 보통 ‘고유어화한 한자어’ 혹은 ‘귀화어’라고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유어화한 한자어란 한국인의 언어생활에서 오랫동안 사용하는 과정에 단어의 음운 구조에 변화가 생겨 원래의 한자 및 현실 한국 한자음과 연계되지 않음으로써 한국인의 의식 속에서 고유어처럼 느껴지고 한자어라 의식할 수 없는 단어들이다.

현실적으로 한자와 연계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오히려 고유어와 상사하거나 일치한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귀화어’는 현실적으로 한자어에서 갈라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자에 기초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애당초 한국 한자음이 아닌 중국음으로 구어를 통해 들어온 단어들이 있다. 구어를 통해 중국어의 음과 뜻을 그대로 받아들인 단어들은 최근에도 생산되고 있다.

(예)

- 치우미 > 추미(球迷) 【명】 중국에서 광적인 축구 팬을 이르는 말.
- 하한쭈(哈韓族) 【명】 한국의 대중문화에 열광하는 중국의 신세대.
- 빠스(拔絲) 【명】 중화요리의 하나. 옥수수, 찹쌀떡, 고구마 따위에 전분이나 쌀가루를 묻혀 기름에 튀긴 후 꿀, 물엿 따위를 발라 만든 음식.
- 차차이(榨菜) 【명】 채로 썬 개채(芥菜) 뿌리에 고추기름, 설탕 따위로 양념을 하여 만든 중국식 밑반찬.
- 샤오쯔(小資) 【명】 중국에서, 중산층을 이르는 말.
- 하이구이(海歸) 【명】 중국에서, 외국에 간 유학생이 공부를 마친 후 자기 나라로 돌아옴을 가리키는 말.

이 부류는 중국음대로 혹은 중국음과 비슷하게 읽히고 있다.

	중국어 병음	한국어 차용음
球迷	[qiiumi] >	[tshiumi]

榨菜	[zhacai] >	[tsatshai]
小資	[xiaozi] >	[siaots'ɿ]
海歸	[haigui] >	[haikui]
苦力	[kuli] >	[kuri]

일반적으로 이런 부류는 한국 독음에 위배되기에 한자어라 할 수 없으므로 외래어에 귀속시키고 있다. 차용된 역사가 길고 자주 쓰이는 용어인 경우 어떤 것은 그것을 고유어로 착각할 때가 있다.

(예)

白菜 > 배채 > 배추
 推刨 > 대파 > 대패
 洞簫 > 통소 > 통소
 筍子 > 바조 > 바자
 荒貨 > 황호, 황후 > 황아
 蜀黍 > 슈슈 > 수수
 赤根菜 > 시근채 > 시금치

이상의 예들에서 ‘배추, 대패, 통소, 바자, 황아, 수수, 시금치’는 어원적으로 중국어에서 온 단어들이다.

그런데 사전들에는 ‘배추, 수수, 시금치’에 대해 같은 말로서 ‘백채, 축서, 적근채’를 표제어로 올리고 있다. 이것은 이 단어들이 중국음으로 유전됨과 아울러 한국 한자음으로도 유전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후자의 경우 한국 규범 한자음에 부합되므로 한자어라 할 수 있다.

보다시피 ‘배추’나 ‘수수, 시금치’처럼 구어 차용 시기의 음운 구조를 기본상 그대로 갖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전혀 한자로 된 중국어 구어 차용 요소임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귀화된 것이 있는가 하면 ‘백채, 축서, 적근채’처럼 구어 차용어의 중국음을 한국음으로 환원하여 놓은 것도 있다.

구어 차용음을 한국 한자음으로 치환한 단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흉비(胸背)>흉배, 탕쇠(湯水)>탕수
창(床)>상, 가기(驕氣)>고기
던링(團領)>단령, 미라(蜜蠟)>밀랍
파란(法躑)>법랑, 대미(玳瑁)>대모

구어 차용음이 이렇게 한국 독음으로 바뀐 까닭은 중국음이 한국 독음 규범에 익숙한 한국인의 입에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일찍이 정약용은 “아언각비”(권2)에서 이렇게 바뀌게 된 까닭을 사대부들에게 귀결시켰다.

如此之類, 不可勝數. 誦之以言, 未嘗有誤 (皆合于華音); 譯之爲文, 乃成異物(從東音以爲文故). 夫物名流傳, 多出什隸; 文字譯成, 皆由學士, 由是言之文物之至蒙昧, 皆士大夫粗率之咎也.<“雅言覺非” 卷2>

한자에 의해 창조된 중국의 단어를 구어로 수용하였을 때는 한자어라 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한국 독음으로 치환되었을 경우 그것은 한자어임이 틀림없다.

2.4.

2.1.에서 우리는 “한자로 된 말”을 말하면서 “한자에서 비롯된 말”이라 하여 모두가 한국의 한자어로 될 수는 없음을 지적하였고 2.2.에서는 “한자에서 비롯된 말”이지만 오늘날 한자로써 적을 수 없고 환원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2.3.에서는 한자음이 한자어의 주요 표식의 하나임을 강조하여 언급하였다.

앞에서 한자로 적을 수 있거나 한글로 적혔지만 한자로 환원할 수 있는 단어는 한자어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한자로 적혀 있는 단어는 모두가 한자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논해 보려 한다.

한국어에는 이미 2.2.에서 말한 중국 한자로 조어되고 한국 독음에 맞는 자작 단어와 한국 국자, 국의자로 조어되어 한자 독음 규범에 맞는 자작 한자어가 있는가 하면 한자의 뜻과 음을 빌려 한국어를 표기하던 역사

과정에서, 즉 차자 표기를 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이두어가 또 있다.

예를 들어 ‘不冬(안들), 不喻(아닌디), 水賜(무수리), 水鐵(무쇠), 斗落(마지기), 畧是(시기), 用良(쓰아), 向入(앗드러), 矣徒(의내), 物物(갓갓), 私音丁(아람더), 使內(바리), 始叱(비릇), 舍音(마름), 易赤(이내어), 物物(갓갓), 故只(짐죽), 斜只(빗기), 捧上(받자), 這這(갓갓), 進賜(나오리), 節(디위), 隨乎(쫘초)’ 등과 같이 옛 문헌에 나타난 이두어들은 한자로 되었지만 한자어라고 하기 어렵다. 우선, 이것들은 한자의 읽기가 한자 독음과 다르다. 다음, 이것들은 본디 한자로써 이러한 새 단어들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고유어를 한자를 활용하여 기록했을 따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한자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고유어에 기초해서 한자로 표기된 것이다. 그리고 일부 경우에 한자 독음으로 읽을 수 있으나 그 역시 고유어의 표기에 불과하다.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적지 않다.

첫째, 가차법(假借法)으로 된 단어들은 그것이 고대 한자음에 의거했지만 이미 있는 고유어를 한자음을 빌려 기록했을 뿐이므로 한자로 표기되기 이전에 벌써 존재한 고유어다.

尼師今(齒理)(“삼국유사”), 闕智(小兒)(“삼국유사”), 徐伐(서불)(“삼국유사”), 弗矩內(赫居世)(“삼국유사”), 居柒夫(荒宗)(“삼국사기”)

둘째, 석독법으로 된 단어들은 아예 한자 독음과 관계없다.

大山(翰山, 한퇴)(“삼국사기”), 酒多(舒弗邯)(“삼국사기”), 金川(素那)(“삼국사기”), 絲浦(谷浦)(“삼국유사”)

셋째, 반가차(半假借) 반석독(半釋讀) 단어도 마찬가지로 이치다.

角干(酒多)(“삼국사기”), 屈火(曲城)(“삼국사기”),
熊間山(功木達)(“삼국사기”), 炤知(毗處)(“삼국사기”)

향가(향찰 표기)에 나타난 단어들 역시 한자로 적혔지만 그중의 거의 대부분은 한자로 표기하기 전에 먼저 고유어로 존재한 것이다. “삼국유사”의 ‘도솔가’를 보자.

今日此矣散花唱良	오늘 이에 산화(散花) 불러
巴寶白乎隱花良汝隱	뽕혀 나온 꽃아, 너희는
直等隱心音矣命叱使以惡只	곧은 마음의 명(命) 시키는 대로
彌勒座主陪立羅良	미륵좌주(彌勒座主) 뵈셔라

‘今日, 此, 唱良, 巴寶, 花, 汝, 直等隱, 心音, 使以, 陪立’ 등은 그것을 ‘오늘, 이, 불러, 뽕혀, 꽃, 너희, 곧은, 마음, 시키는, 뵈셔’와 같은 고유어로 읽으므로 한자로 기록되었지만 한자 독음과 관계없다. 그리고 ‘矣, 隱’은 가차 원리로 된 한국 고유의 격표지이다. 그러나 ‘散花, 命, 彌勒座主’는 중국 한자로 만들었고 또 한자 독음에 맞으므로 한자어라 보아야 할 것이다.

‘한자로 적혀 있는 것’이 모두가 한자어가 아닌 것은 의학 문헌 “향약구급방”에서의 차자 표기 단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중국어(中國語)	향약목(鄉約目)
鷄冠[계관]	鷄矣碧叱(닭의 벚)
苦參[고삼]	板麻(너삼)
桔梗[길경]	道羅次(도라지)
鹿角[녹각]	沙參矣角(사슴의 뿔)
麥門冬[맥문동]	冬沙伊(겨우살이)
牡蠣甲[모려갑]	屈召介甲(굴 조개 껍데기)
白朮[백출]	沙邑菜(삼주)
百合[백합]	犬那里花(개나리꽃)
橡實[상실]	豬矣栗(돌의 밤)(도톨밤)
蜈蚣[오공]	之乃(지네)
郁李[옥리]	山叱伊賜羅次(산앵두, 산이스랏)
蝟皮[위피]	高蔘猶矣皮(고슴도치 가죽)
蒼耳[창이]	刀古休伊(도꼬마리)
菴藷[충울]	目非也次(눈비얏)(익모초)

菟絲子[토사자]	鳥伊麻(새삼)
葍馬子[과마자]	阿叱加伊實(아주까리씨)
黃芩[황금]	精朽草(속서근풀[<속썩은풀])
屨斗[올두]	多里甫里(다리미)

이상의 한자로 적힌 한약재들에서 앞에 놓인 중어명은 차용되어 한국 독음으로 읽으므로 한자어라 하지만 향약목의 단어들은 이두식 표기로 읽어야 하므로 한자로 적혔지만 한자어라 할 수 없다.

그런데 한국어에는 한글 창제 후에도 한자로써 이미 있는 고유어를 표기한 것들이 있다. 이 경우 한자의 뜻과는 관계없이 한자의 독음만 빌려 이미 있던 고유어의 음을 표기한다. 즉 한자의 가차 방법만을 빌려 고유어의 음을 표기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런 부류만을 ‘취음어’ 또는 ‘부회어’라 규정지어려 한다.

(예)

사돈 > 查頓	각시 > 閣氏
진지 > 進止	단골 > 丹骨
아기씨 > 阿只氏	조개 > 朝開

취음어에는 한국 국자로 조어진 것도 있다.

(예)

갈초(芨草), 돌(芨), 고삐(髡非), 술(芨)

이런 부류에서 민간 어원이나 어원 추측에 의해 비슷한 뜻과 같은 음의 한자를 쓴 것들은 자칫하면 한자어라고 그릇 인정할 수도 있다.

(예)

번개 > 翻開	안개 > 眼蓋
바다 > 波多	수박 > 水朴
모기 > 暮起	우레 > 雨來
보산 > 包跣	개천 > 開川

보다시피 이두어와 취음어는 한자로 기록되었다 하여도 한자어로 간주할 수 없다. 이두어의 석독음은 중국음도, 한국 한자음도 아닌 것이며 가차 한자는 고유어 표기 수단으로만 쓰였을 뿐이다. 취음어의 한자 독음은 한국식 독음이지만 고유어가 먼저 있었고 한자는 고유어가 있는 연후 오직 그 표음 수단으로만 썼을 따름이다. 따라서 취음어 한자의 뜻은 고유어의 의미와는 전혀 무관하게 건강부회한 것이다.

3.

우리는 이상에서 사전들에 제시된 ‘한자어’의 어의 해석들을 검토해 보았다. 우리는 한자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꼭 한국어 한자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자로 적을 수 있는 단어라 하여 꼭 한자어가 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였다.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라 하여도 한국어 어휘 체계에 수용되지 않은 것은 우리의 한자어가 될 수 없으며, 역사상 한국어 어휘 체계 내에 있었고 또 한자로 적힌 것이라도 고유어이지 한자어가 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한자와 연계가 없는 것, 한자로 환원할 수 없는 것은 한자어라 하기 어렵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한자어 가운데서 고유어화하여 한자와 연계를 끊은 것을 기원의 각도를 떠나서 현대인의 시각으로 볼 때 의연히 한자어라고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것은 언어 발달의 견지에서 응당 재고의 여지를 두어야 할 문제이다. 이두어, 취음어는 한자로 만들어졌거나 기록되었어도 한자어가 아니다. 총괄해 보면 중국어에서 차용했거나 일본어에서 차용했거나 한국에서 조어하였거나를 막론하고 한자에 기초했고 한자로 적을 수 있거나 환원할 수 있으며 현실 독음 규범에 맞고 한국어 어휘 구성 속에 있는 것은 현실 한자어로 인정해야 한다.

한국어 단어의 정립 기준은 흔히 자립성과 분리성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형태상, 의미상 자립 형식 자격을 갖추어야 단어라 일컬을 수 있다.

‘자립 형식의 자격’이라는 데 비추어 보면 한자로 되었어도 실질적·어휘적 의미 없이 문법적 의미만을 나타내는 것은 한자어라 하지 못한다.

凡流罪良中犯爲在乙良<“대명률직해” 1권 16장>
事狀乙囚人亦中漏通令是乎矣<“대명률직해” 28권 4장>
徒流罪良犯爲在乙良<“대명률직해” 1권 19장>

여기서 ‘良中’, ‘良’, ‘亦中’은 ‘아해’, ‘여해’로 읽어 그 음이 한자음과 어긋나는 것은 체쳐 놓고라도 그것이 문법적 의미만을 가졌다는 점에서 한자어로 될 수 없다.

唯只二死三流罪段各同一減<“대명률직해” 1권 41장>

여기서 ‘段’은 ‘단’ 내지 ‘싼’으로 읽는데 ‘란/으란’이라는 문법적 의미만 가진 것이므로 한자어가 아니다. 그러나 다음의 글에서의 ‘段’은 실질적 어휘적 의미로 쓰이므로 한자어로 된다.

- 열두 살 때 단(段)을 띤 실력자다.(여기서는 자립 명사)
[참고] 층계를 한꺼번에 세 단씩 뛰어 올라간다.(여기서는 의존 명사)

또 다음의 예를 보자.

犯人矣自己分坐罪爲乎事<“대명률직해” 1권 13장>
靑魚五百冬音式詳定<“紹修書院” 立議>
十惡乙犯爲在隱不用此律<“대명률직해” 1권 8장>
未蒙昭釋之典是乎尼<“유서필지”>
唯人伊最貴爲尼<“동몽선습”>

예들에서 ‘分, 式, 乙, 尼’ 등은 ‘분(썬), 식, 을, 니’ 등으로 읽어 한자 독음(혹은 유사음)에 부합되나 그것들은 문법적 형태에 불과하므로 한자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한자 독음으

로 읽히므로 한자어가 된다.

-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다.(명사)
[참고] 3시 30분(의존 명사)
3인분(접미사).
- 식을 거행하다.(명사)
[참고] 한국식(접미사)
다섯썩(접미사, 이두문의 ‘式’과 통한다.)
- 건물주를 갑, 입주자를 을이라 한다.(명사)
<이상 “동아새국어사전”>
- 尼曰阿尼<“계림유사”>
阿尼典母六人<“삼국사기” 권39, 신라 관직>
見女處曰阿尼帖<“삼국유사” 권5>
以長公主妻之,是爲阿尼夫人<“삼국유사” 권1>

‘尼’는 불교어에서 ‘여승’을 가리키므로 ‘阿尼’도 고려와 고려 이전 시대에는 ‘여승’을 가리켰다고 본다. 그러나 다음 문장의 ‘尼’는 그런 뜻이 전혀 없고 오직 구결도로서 연결 어미일 뿐이다.

- 天地之間 萬物之衆唯人伊 最貴爲尼

4.

본고에서 토론한 모든 것들을 귀납하여 한자어의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본다.

첫째, 한자어는 반드시 한자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낱말이거나 이미 이루어진 기성 한자어에 기초하여 파생 또는 합성된 것이어야 한다.

둘째, 한자어는 반드시 한국어 어휘 체계 속에 수용된 것이어야 한다.

셋째, 한자어는 반드시 한자와의 연계를 잃지 말아야 하며, 한자로 적

을 수 있어야 하며, 한글로 표기된 것이면 한자로 환원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한자어는 한글로 표기했든 직접 한자로 기록했든, 그 음은 반드시 한국 한자 독음 규범에 부합되어야 한다.

다섯째, 한자어는 반드시 형태상, 의미상의 자립성을 가져야 하는바, 한자로 적혀 있고 한자 독음에 부합되더라도 형식 형태소로서 문법적 관계만을 나타내는 것은 한자어라 할 수 없다.

이런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것들은 현대 한국어 한자어라 하기 어렵다.

첫째, 역사적으로 한자어였지만 오늘날 그 음이나 뜻이 한자와 연계가 끊어졌거나 애초에 중국음으로 차용한 것들은 한자어라 할 수 없다.

둘째, 역사적으로 사용되었고 또 현실적으로 한자로 적혀 있는 낱말일지라도 그 독음이 현실 한자음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면 한자어라 할 수 없다.

셋째, 역사적으로 사용되었고 또 현실적으로 한자로 적혀 있으며 그 독음이 현실 한자음에 부합되는 것일지라도 한자를 이용해 기성 고유어를 적은 것이면 한자어라 할 수 없다.

| 참고 문헌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김광해(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김문창(1995), ‘고유어에 대하여’, “仁荷語文研究” 제2호, 인하대 인하여문연구회.

김수경 등(1964), “조선어 어휘론 및 어음론”, 고등교육도서출판사.

김영황(1997), “조선어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김종훈 외(1998), “韓國語의 歷史”, 대한교과서.
 김종훈(1983), “韓國固有漢字研究”, 집문당.
 두산동아 사전편집국(2001), “동아새국어사전”, 두산동아.
 리동빈(1999), “조선어 기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박용찬(2002), “2002년 신어”, 국립국어연구원.
 박용찬(2003), “2003년 신어”, 국립국어연구원.
 박용찬(2004), “2004년 신어”, 국립국어원.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1992),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심재기(1987), “國語語彙論”, 집문당.
 양하석 등(1986), “언어학사전(2)”,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언어문학연구소 사전연구실(1962), “조선말사전”, 과학원출판사.
 언어학연구소(1973), “조선문화어사전”, 사회과학출판사.
 연세대 언어정보개발연구원(1998),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이기문(2002), “新訂版 國語史概說”, 태학사.
 이득춘(1987), “고대 조선어 강독”, 연변대학 교무처.
 이득춘(1988), “조선어 어휘사”, 연변대학출판사.
 이익섭 등(1997), “한국의 언어”, 신구문화사.
 최정후(1983), “조선어학 개론”,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한글학회(1997), “우리말큰사전”, 어문각.